

# 장성군, 아열대작물 연구·재배 중심지 도약 '첫 발'

###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기공식...370억 투입 2026년 완공 내륙위치·교통요충지로 신속·효율 ↑...국내 중추적 역할 기대

장성군이 아열대작물 연구·재배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8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장성군 삼계면 상도리 일원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김명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장,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공직자,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으로 아열대작물 재배 연구·실증, 산업화 촉진 등을 추진한다.

센터 건립은 대지면적 2만7천783㎡, 바닥면적 합계 4천388㎡ 규모로 사업비 370억원 전액이 국비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부지 내 종합연구동, 관리사, 경비실 등이 들어서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이다.

장성군은 그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실시계획 등 센터 건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진청, 전남도와 적극 협력해 왔다.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장성 건립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수도권 등 내륙 지방 아열대작물 재배 대응이다.



장성군이 최근 삼계면 상도리 일원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장성군 제공〉

다른 아열대작물 연구시설들이 해안 지역에 조성된 데 반해 장성군은 전남에 따른 전국적인 아열대작물 재배 확산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관문이자 호남고속도로, KT X 등이 경유하는 교통 요충지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연구 결과 공유가 용이해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효율성과 신속성을 한층 높일 수 있어 아열대작물 재배 연구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한중 군수는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가 장성 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과 신속·효율 기회 창출, 나아가 국가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아열대과일 재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신소득 아열대작물로 육성하고 있는 레몬은 총 12농가 3.8ha 규모로 재배 중이며, 올해 첫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생산을 시작한 애플망고도 고부가가치를 지닌 명품 아열대과일로 소비시장에서 각광 받고 있다. /장성=김문태기자



## '눈부신 선홍빛 물결' 여수 흥국사 꽃무릇 축제 개최

### 14일 '108돌탑 꽃무릇 음악회'...사진전 등 부대행사 다채

'호국불교의 성지' 흥국사에서 108돌탑과 꽃무릇이 어우러진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8일 여수 흥국사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흥국사 108돌탑공원 일원에서 '흥국사 108돌탑 꽃무릇 음악회'를 개최한다.

흥국사 108돌탑 꽃무릇 음악회는 임진왜란 당시 맹활약한 의승수군의 넋을 위로하고 여수산단의 안전을 기원하는 108돌탑과 수백만 송이의 꽃무릇을 배경으로 산사 음악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특히 이번 꽃무릇 음악회는 흥국사 흥교 밝기 농악과 국악의 허숙 명창과 가야금 류가연을 비롯해 서지오와 배연진, 조정희, 이정호 등 유명 가수가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부대행사로 꽃무릇 사진전과 다과 체험, 흥국사 역사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펼쳐진다.

흥국사 관계자는 "최근 수백만 송이의 꽃무릇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며 "산사음악회가 열리는 14일 꽃무릇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돼 흥국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추억을 선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흥국사는 보조국사 지눌이 1185년(고려 명종 25년)에 창건한 사찰로 보물 제300호 대웅전을 비롯해 국내 최대 괘불탱화와 흥교 등 10개의 보물이 있는 호국불교의 성지다.

/여수=김진선기자

## 광양교육지원청, 학생 이색 진로탐색 체험

### 앙리 마티스 작품·음악 연주회 감상...창의성 자극·동기 부여

광양교육지원청은 "최근 한국청의 예술중학교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여수 예술마루에서 특별한 진로 탐색의 시간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진로 현장탐방은 단순한 진로 체험을 넘어 미술과 음악이라는 두 가지 예술 분야를 융합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진로 탐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학생들은 세계적인 화가 '앙리 마티스'의 작품을 감상하며 전문 도슨트의 설명을 통해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와 작가의 의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람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미술 작품과 음악이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였다.

진로 현장탐방에 참가한 한국청의 예술 학생은 "미술 작품과 음악을 통해 나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선 교육장은 "이번 진로 현장탐방을 통해 학생들이 예술 분야에 대한 흥미를 더욱 키우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 화순군, 추석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 13일까지 원산지표시 이행·표시 방법 적정 여부 등 점검

화순군은 8일 "오는 13일까지 추석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전남도·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와 단속반을 구성, 명절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

을 대상으로 전통시장·판매소와 음식점 등을 중점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허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농산물 688개 품목과 수산물 226개 품목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중

심으로 현수막 게시, 유동 질서 확립,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구현된 농촌활력과정은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의심 시 농식품부 정유통신센터(1588-8112)에 신고하면 된다. /화순=이병철기자

## 곡성 뚝방마켓 재개장

곡성군은 8일 "지난 7일 곡성의 특산물을 판매하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가득한 '뚝방마켓'이 재개장을 알렸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뚝방마켓은 '뚝방마켓 날개를 달다'라는 슬로건으로, 매주 토요일 00여팀의 셀러와 지역조합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2월까지 수공예품과 지역의 농특산물, 가공품 등 이색적인 상품을 판매한다.

또한 지역 내 중·고등부 재능기부 공연과 마술 공연, 소리사랑 재능기부, 아리아 홀라덴스, 마을학교 체험부스 운영, 추석맞이 달떡 나눔 이벤트 등도 함께 진행한다.

60팀 셀러·조합원 참여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농특산물·공예품 판매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

'뚝방마켓'은 창작자들의 독특한 감성

을 담은 디자인 소품과 수제방 등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오감 가득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다.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총 20회를 개장해 1천215명의 셀러가 참여했고 6만3천425명의 방문객과, 2억6천여만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2016년 첫 개장을 알린 '뚝방마켓'은 지역민과 셀러, 작가와 예술가 등이 함께 참여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문화장터로 자리 잡았다"며 "하반기에는 사생대회와 가을 미니 운동회, 할로윈데이 이벤트,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 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있으니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기자



"전통시장서 '가치' 삼시다" 지난 7일 김철우(오른쪽에서 두번째) 군수와 문금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성군의회 의원들이 녹차골 보성향토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장보기' 행사 중 상인에게 밥과 호박을 구매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 담양군,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진행

### 주요 성수품 물가 동향 파악·원산지표시제 시행 여부 점검

담양군은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창평 전통임시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병노 담양군수와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 최현동·박준엽·장병영 의원, 김병규 행정과장, 담양군 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농특산물과 제수용품을 직접 구매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했다.

또한 이 군수는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주요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제 시행 여부를 점검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담양군은 이번 장보기 행사에 이어 12일 담양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이러할 계획이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일 고서면 이장단은 담양시장에서, 창평면 이장단은 창평 전통임시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이병노 군수는 "추석 명절 먹거리 준비는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함께 하길 바란다"며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 고흥 전통시장 '시골벽적 프로젝트'로 브랜드화

### 숯불 생선구이 전문식당 개장·주차장 확대...트리아트 등 불거리도

고흥군이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숯불 생선구이 전문식당'과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조성'을 완료했다.

8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고흥읍 기관·사회단체장, 고흥전통시장 상인회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숯불 생선구이

전문식당' 개장식과 '전통시장 주차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흥전통시장 시골벽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숯불 생선구이로 특화된 고흥전통시장을 브랜드화하고, 관광객이 안전하고 접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이 사업에는 주차장 확대, 숯불 생선

구이 전문식당 조성, 트리아트 설치 포함됐다.

고흥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달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2천233㎡ 규모 주차장은 대형버스 5대가 승용차 42대가 주차할 수 있으며 빈 장소를 리모델링한 숯불 생선구이 전문식당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편하게 생선구이를 맛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편의와 재미를 더하기 위해 비가림 3차 시설과 트리아트도 설치했다.

/고흥=최봉환기자